

지역 소식통

고창소방서, 휴가철 대비

화재예방 홍보 강화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야외활동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도민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용 전 안전점검과 올바른 사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창소방서는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전 전선의 손상 여부와 콘센트 접속 상태를 확인하고, 멀티탭 과부하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실외기 주변 먼지를 제거하고 통풍이 원활한 환경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냉방기에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사랑상품권 플랫폼

'착(Chak)' 앱으로 전환

고창군이 2일 오전 9시부터 고창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를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하고, 상품권 운영 플랫폼을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전환에 따라 기존 '고창사랑페이' 앱은 '조폐공사 착(Chak)' 앱으로 변경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착(Chak)' 앱을 설치하고 회원 등록을 완료하면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고창사랑카드와 보유 잔액은 회원 등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이관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선불카드 가운데 본인인증이 되지 않은 일부 카드는 보유 잔액을 모두 사용한 후 신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플랫폼 전환으로 이용자는 상품권 구매·충전, 결제, 잔액 조회 등을 '착(Chak)'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편리한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선 9기 더 큰 도약 완성

이학수 시장, AI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등 5대 시정 목표·80개 핵심 사업 발표

정읍시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이학수 정읍시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산업 육성과 맞춤형 복지 등 민선 9기 80개 핵심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여는 미래'를 민선 9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앞선 4년간 다진 기반 시설(인프라)을 발판 삼아 앞으로는 실행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경제, 농업, 보육, 문화, 보건, 도시, 청년, 체육 인구 등 8개 분야에 걸쳐 세부 목표를 마련했다.

먼저 지역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새만금 배후 태인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도 확장해 기업이 들어설 공간을 넓힌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새로 짓고 'AI 바이오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와 'AI 미생물 거점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동물용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반려동물(펫) 산업 육성에 함께 추진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한다는 방침이다.

농촌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담았다. 매년 20억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을 확대해 농가 소득 안정망부터 다진다. '시설원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등 정읍형 농기계 통합지원센터 구축, 맞춤형 비 상품종 보급 확대 등 농업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빈 점포는 새단장(리모델링)하고 고령 소상공인의 사업 승계를 도우며 청년 창업 시범 운영 공간까지 제공해 골목 상권 회복을 뒷받침한다.

시민이 함께 누리는 교육과 문화, 건강 강한 복지 체계 마련에도 공을 들인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등으로 안심 보육 환경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도 구축해 지역 인재를 키운다.

내장호 사계절 자연치유 관광지 조성, 동진강과 정읍천 수변 복합 레저 공원 건립, 마한·백제문화권 유적 발굴을 통해 역사 문화 자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로당 부식비와 어르신 건강증진비 지원을 늘리는 한편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복지도 넓혀간다. 50

세 이상 시민 건강 예방 집중, 치매 조기 진단비 지원 확대 등 사전 예방 중심의 돌봄 체계도 새롭게 정비한다.

정주 여건을 개선해 생활 인구를 넓히는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청년 신혼부부 반값 주택, 청년 새출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 인재양성 취업 캠퍼스를 운영해 청년들이 정읍에 뿌리내리도록 이끈다.

위케이션 센터 건립, 에너지 자립 체류형 건강 마을 조성, 한국가요촌 복합문화공간 마련 등 머물고 싶은 정읍을 만드는 데도 힘을 보탠다.

이학수 시장은 "민선 9기 공약 사업은 지난 4년 동안 시민과 함께 뿌린 변화의 씨앗을 삶 속에서 꽃피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며 "단 하나의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한 여름밤 콘서트' 9일 열린다

고창읍성 잔디광장서 개최... 데이브레이크·너드커피션 출연

고창군이 오는 9일 저녁 고창읍성 앞 잔디광장에서 데이브레이크, 너드커피션이 출연한 '고창 한 여름밤 콘서트'를 연다.

데이브레이크는 '좋다', '들었다 보았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국민 밴드다. 청량하면서도 경쾌한 감성은 물론 노련무대 매너로 현장 분위기를 최고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너드커피션은 '좋은 밤, 좋은 꿈', '우린 노래가 될까' 등의 노래로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밴드다. 흡입력 있는 보컬과 서정적이면서도 단단한 락 사운드로 한 여름밤의 낭만적인 감성을 더 깊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고창군이 주최·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와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도시센터가 후원한다.

고미숙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고창읍성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여름밤 콘서트"를 펼쳐 무더위에 지친 군민들



이 활력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연료는 신작순 무료 입장이며,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인재 육성 위한 나눔문화 확산 동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부안경찰서 찾아 릴레이 캠페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은 최근 부안경찰서를 찾아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릴레이캠페인을 펼치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나섰다.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월 1만 원의 소액 정기후원으로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참여형 장학 캠페인이다. 군민들의 정성이 모여 현재 부안군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지원과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이어지며,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태양광 '야외 근로자 쉼터' 본격 가동

초산동 도심공원·철보 물테마 유원지 2곳 조성... 이달부터 운영

정읍시가 기후 위기에 취약한 야외 공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으로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쉼터 2곳을 조성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쉼터는 초산동 도심공원과 철보 물테마 유원지 두 곳에 들어섰다. 공원 청소나 예초 작업 등을 맡은 야외 공공 근로자 총 45명이 주된 이용 대상이다. 이들이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안



전하게 휴식을 취해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설 확충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결과다. 시는 확보한 총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맞춤형 휴식 공간을 완성했다.

시설 내부에는 미세먼지 여과기(필터)와 냉난방 설비를 알차게 갖췄다. 특히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달아 전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너지 자립형으로 꾸린 점이 돋보인다.

시는 앞으로 기상 악화 시 근로자들의 작업 강도를 조절하고 쉼터에서 충분히 쉬도록 환경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운영 방식을 꾸준히 다듬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운영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부안군은 2일 보안면 남부안농협 문화복지센터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이번 농촌왕진버스는 보안면·줄포면·진서면 지역 고령자와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참여 주민들에게는 한방 진료를 비롯해 치과·안과 검진 등 전문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됐다. 이날 의료서비스에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다비치 안경점 등 3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분야별 의료진이 주민 맞춤형 진료와 검진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농촌왕진버스는 보안면·줄포면·진서면을 시작으로 계획면 7월, 상서면·행안면 8월, 부안읍·동진면·백산면·주산면 8월, 하서면 10월, 변산면·위도면 11월 등 총 6회 운영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